



오염백신에 또 돼지열병 항체 검출

제주시 무상보급 일본뇌염 백신, 작년 ‘항체 검출’ 파동
최근 돼지 3마리 항체 검출… 농가, 문제 백신 접종한 듯
방역당국, 작년 양돈장 “폐기하겠다” 말 믿고 수거 안해

제주지역 양돈장에 보급된 ‘돼지열병 오염 백신’을 방역당국이 제대로 회수·폐기하지 않는 바람에 또 다시 도내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돼지열병은 전염성이 높고 감염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제주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해외 수출 등을 위해 이 병에 걸린 돼지뿐만 아니라 항체가 형성된 돼지까지 발생하지 않는 ‘돼지열병 청정화 지역’을 심수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다.

1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제주시 구좌읍 A양돈장을 상대로 한 정기 검사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됐다. 당시 동물위생시험소는 A양돈장이 기르는 돼지 2200여마리 가운데 14마리를 골라 간이키트로 표면 검사를 했으며, 이중 한 마리에게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되자 이틀남 표본을 63마리로 늘려 2차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77마리 중 총 3마리에게서 돼지열병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열병 항체는 이른바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병원성 바이러스(항원)에 감염됐거나, 예방 백신을 접종했을 때 등 두 가지 경로로 형성된다.

방역당국은 A양돈장에서 검출된

항체가 돼지열병 항체가 맞는지 최종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방역당국은 고열, 구토 등 임상 증상이 없는 점을 미뤄볼 때 병원성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방역당국은 항체 형성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오염 백신 접종을 꼽고 있다.

A양돈장 역학 조사에서 올해 4월 외국인 근로자가 냉고에 보관돼 있던 B사의 일본뇌염 예방 백신을 돼지에게 접종했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B사의 일본뇌염 예방 백신은 2023년 제주시가 일괄 구입해 도내 162개 양돈농가에 무상 보급한 것으로, 지난해 돼지열병 항체 집단 검출 사태를 일으킨 문제의 백신이다. 일본뇌염 예방 목적과 무관한 엉뚱한 돼지열병 항원이 섞여 있는 등 백신이 오염되면서 빚어진 문제로 이 백신을 접종한 도내 양돈장에서 잇따라 항체가 검출됐다.

도는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백신에 대한 반입과 사용을 금지하고 양돈장에 남아 있는 백신을 긴급 수거해 폐기에 나섰다.

백신 회수·폐기는 공무원이 양돈장을 직접 찾아가 수거한 뒤 동물위생시험소로 전량 보내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제주시는 A양돈장에 대해선 당시 농장주가 “자체 폐기하겠다”고 하자, 이 말만 믿고 직접 회수에 나서지도 폐기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A양돈장이 문제의 백신을 실제로 폐기했는지, 폐기했다면 의료 폐기물로 처리했는지, 아니면 일반 쓰레기처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렸는지 등을 파악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시 백신을 보급 받은 농가가 워낙 많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산 돼지 브랜드 제고와 해외 수출 등을 위해 세계동물복지기구가 인증하는 돼지열병 청정지역을 추진하고 있다. 청정지역으로 인증 받기 위해선 돼지열병에 감염된 개체뿐만 아니라 예방 백신을 접종할 때 형성되는 항체 또한 없어야 한다.

다른 지역은 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해 생독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이를 금지하고 사독백신만 허용하고 있다. 생독백신은 항원의 병원성을 감소시켜 독성을 원래보다 약하게 만든 것을, 사독백신은 바이러스를 완전히 죽여 단백질 형태로 만든 것을 각각 말한다. 도는 돼지열병 청정지역 인증 시점을 원래 2025년으로 계획하고 사독백신 접종도 지난해부터 중단할 방침이었지만 그해 문제의 백신 오염 사태가 터지며 목표 시점을 2028년으로 연기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4개월 만에 재구속

10일 영장실질심사서 법원 “증거 인멸 염려”… 내란특검, 수사 속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뭉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쏘고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쯤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본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밝힐 중요 관계인인 강익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수사기관 조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개입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도 법원은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뒤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특유의 속도전을 구사하며 의혹 정

성공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서부터 어느 정도 다져왔던 만큼 구속기간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를 상당수 비공개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 시기, 방식, 조사자 등을 두고 건건이 대답해온 점에서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외에도 언론사 단장·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후 안가(안전가옥) 회동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연합뉴스

제주연구원 조직개편… 미래대응전략실 신설

부 체제→5개 실 체제로
미래 아젠다 발굴 등 강화

제주연구원이 신임 유영봉 원장 체제 출범과 함께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제주연구원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기존 부 체제를 5개 실 체제로

변경하고 소통협력과 협력연구를 강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외부소통을 통해 연구기획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기획부를 연구기획전략실로 개편했고 중장기 미래 아젠다의 선제적 발굴을 위해 미래대응전략실을 원장 직속으로 신설했다.

기존 4개 연구부도 도민행복연구

실과 지속성장연구실로 통합하고 연구 주제간 경계를 허물고 협력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이와함께 센터와 연구부서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부원장 중심으로 일원화해 신속하게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주연구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인사를 11일자로 단행할 예정이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한금)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추가 적합 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서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을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립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선심 의뢰번호 2010-GN180079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청능재활센터 이명전문케어센터

원장 강동우
청각학 박사 수료
산학협력 교수
전 문 청 능 사
언 어 재 활 사

